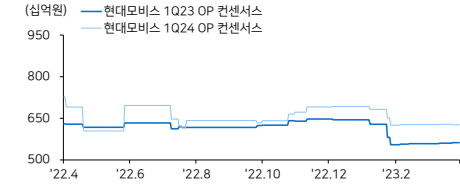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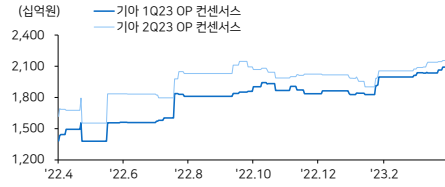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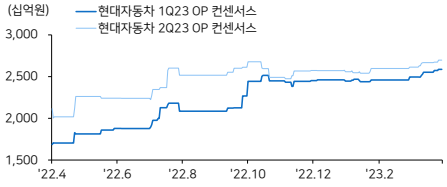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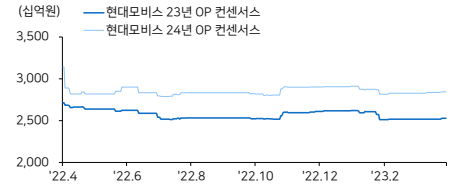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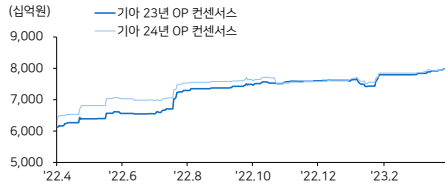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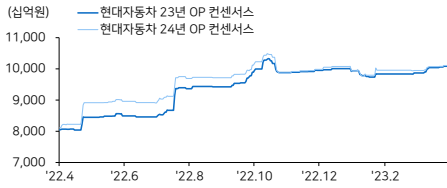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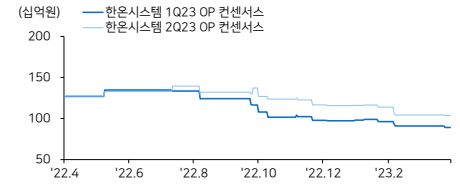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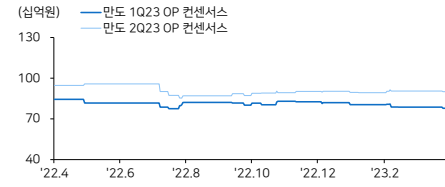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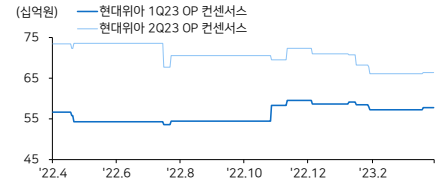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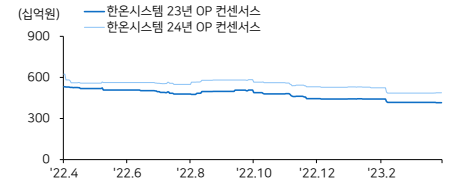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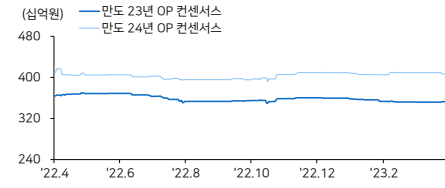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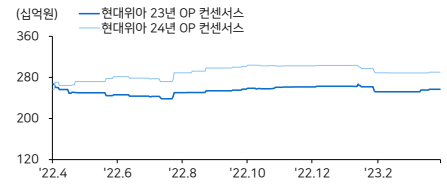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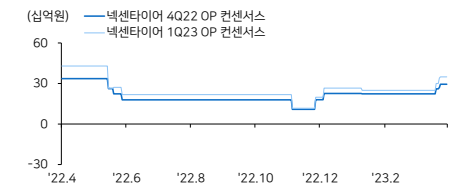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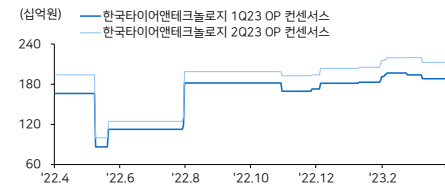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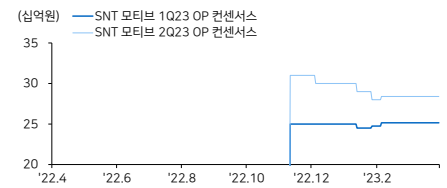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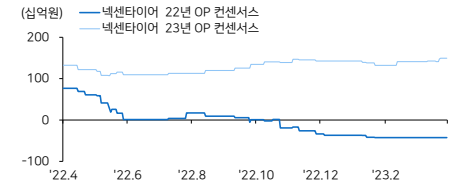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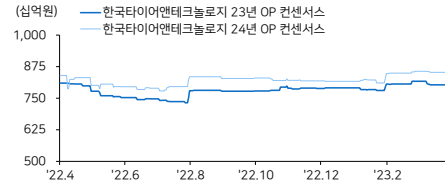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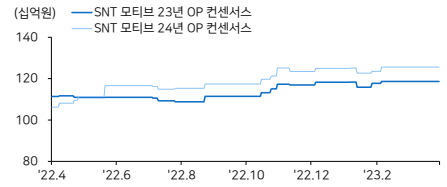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1분기 유럽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하락 (조선비즈)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유럽 자동차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4.7% 늘어난 282,193대로 집계됨. 그러나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8.7%로 작년 1분기에 비해 1.1%p 하락하여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https://bit.ly/3MYtu0n>

"이전 전기차 퍼스트" 도요타, EV 전략 가속...3년 내 테슬라 따라잡겠다 (파이낸셜뉴스)

신임 토요타 CEO는 EV 판매대수를 2026년까지 연간 150만대로 끌어올리고 전기차 모델을 10개로 확대하겠다고 선언, 2025년 미국 SUV EV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 현대차의 미국 공장 완공과 유사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KJnvs9>

Tesla releases 1Q23 results: meets expectations, impresses with gross margin (electrek)

테슬라가 1Q23 실적 발표. 컨센서스(매출액 236.17억 달러, EPS 0.85 달러)에 부합하는 실적, 매출 233억달러, EPS 0.85 달러를 기록. 분기초부터 단행된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19.3% GP Margin을 달성.

<https://bit.ly/3LgLWQM>

Tesla reports massive increase in energy storage deployment, thanks to Megafactory (electrek)

Tesla는 메가팩을 생산하는 신규 메가팩토리 덕에 1Q23 ESS 판매가 YoY 360% 증가한 3.9GWh를 달성했다고 발표. Lathrop 메가팩 공장의 생산능력 목표는 연간 40GWh 수준. 올해 중 상에서 동 일한 규모의 메가팩토리 신설 계획.

<https://bit.ly/3MXvcpR>

美 보조금 받는 전기차 77%, 한국산 배터리 쓴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의 77%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파악.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22개 전기차 모델 가운데 11개 모델에 적용돼 IRA 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됨.

<https://bit.ly/41CTzXv>

중 비야디 "인간과 완전 분리된 자율주행은 불가능" (글로벌이코노믹)

비야디는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자율주행 기술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기술 개발 투자는 제조의 영역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 테슬라, Xpeng, 바이두 등 업체의 자율주행 개발 노력과는 상반되는 의견.

<https://bit.ly/3mRDxcX>

As EV costs tumble in China, an export wave builds (Reuters)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판매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이 '가격'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BYD 등 중국 업체가 이를 해결하여 전 세계 EV 판매를 계획 중.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보급형 전기를 판매하려는 공격적 전략이 예상됨.

<https://reut.rs/3AjD1Y9>

German automakers fight to defend their turf from Chinese rivals (Reuters)

독일 업체들이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 VW는 전체 판매의 1/3을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장 노출이 큰 상황. 2022년 기준, 4개 독일 주요 브랜드의 EV 판매량은 BYD의 1/4 수준에 불과.

<https://reut.rs/3GXhUpa>